

TV 1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Table with 5 columns: 채널A, KBS1, KBS2, MBC, KBC/SBS. Rows show program schedules for various channels.

EBS

Table with 4 columns showing EBS program schedules for different time slots.

EBS플러스1

Table with 2 columns showing EBS Plus 1 program schedules.

EBS플러스2

Table with 2 columns showing EBS Plus 2 program schedules.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7월 1일 (음 6월 5일 癸酉)

Table with 2 columns: Day (子, 丑, 寅, 卯, 辰, 巳) and Fortune text for each zodiac sign.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

영광과 상처 ... 'PD수첩' 1000회

‘돈으로 보는 대한민국’ 3부작 특집 방송

‘우리 시대의 정직한 목격자’를 자처한 PD수첩은 1천 회를 거치면서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상징으로 각인됐다.

PD수첩은 1990년 5월8일 다국적 기업의 한국 여성 근로자 무단 해고 사태를 그린 ‘피코 아줌마 열 받았다’ 등 4개 짝지를 선보이며 첫 전파를 뒀다.

그러나 영광의 순간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PD수첩 제작진들은 거대권력이나 시대의 금기를 조준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위협을 받았고 순식간에 국민의 공적으로 불리기도 했다.

1999년 ‘이단 파문, 이재록 목사-목자님 우리 목자님!’ 편은 만민중앙성결교회 신도들의 방송사 주조점심 절거로 방송 도중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PD수첩은 2005년 11월 방영된 ‘황우석 신화의 난자 의혹’을 시작으로 ‘단군 이래 최대의 쫓겨’라고도 일컬어졌던 황우석 당시 서울대 교수 연구팀의 출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조망했다.

PD수첩은 취재윤리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대국민 사과에 이어 방송 폐지 위기에까지 내몰렸다.

당시 책임PD였던 최승호 PD는 “가장 많이 두려워했던 것은 황우석 사태 때였다. ‘MBC는 왜 그래’하는 식으로 괴롭힘을 당했다. 그럼에도 실제적 진실이 밝혀지면 모든 게 달라지리라 생각했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고 최근 신간에서 밝힌 바 있다.

이밖에 ‘미군 전차와 두 여중생’(2002), 삼성 일가를 다룬 연속 기획 보도, ‘검사와 스폰서’(2010), 민간인 불법사찰을 다룬 ‘이 정부는 왜 나를 사찰했나’(2010년) 등도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았다.

◆술한 논란의 중심...예전보다 파급력 약해=장훈 감독의 영화 ‘의형제’에는 ‘PD수첩은 오류수첩이었다’는 제목의 신문기사와 “PD라는 새끼가 빨갱이니...”라는 대사가 화면에 등장한다.

PD수첩은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는 계기를 마련했음에도 우리 사회가 갈수록 분열하는 상황에서 보도 내용의 객관성과 방향성 등으로 인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소유·정기고 ‘썸’, 상반기 결산 차트1위

음악 사이트 지니 ... 2위 ‘렛 잇 고’

썸스타의 소유와 가수 정기고가 듀엣한 ‘썸’이 KT뮤직이 운영하는 음악사이트 ‘지니’에서 올 상반기 가장 큰 사랑을 받은 곡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가 30일 입수한 지니의 2014년 상반기(1월1일~6월 29일) 차트 분야별 결산 데이터에 따르면 ‘썸’은 실시간 차트서 총 688시간 동안 1위를 한 것으로 집계되며 종합차트(스트리밍+다운로드) 정상에 올랐다.

지난 2월 발매된 ‘썸’은 ‘썸 타는’ (남녀가 연인이 되기 전 핑크빛 감정을 주고받는 관계) 트렌드를 가사에 반영한 경쾌한 곡으로 대중의 오랜 사랑을 받았다.

종합차트 2위는 할리우드 애니메이션 ‘겨울왕국’의 주제곡인 ‘렛 잇 고’(Let It Go)로 실시간 1위를 한 누적은 292시간으로 집계됐다.

3위는 아이유의 ‘금요일에 만나요’, 4위는 걸스데이의 ‘섬섬’ (Something), 5위는 성시경의 ‘너의 모든 순간’이 차지했다.

또 악동뮤지션의 ‘200%’가 6위, 투애니원의 ‘컴백홈’이 7위,



했다.

MBC 내부에서도 제작진 인사와 방송 사정검열, 불방 등을 둘러싸고 오랫동안 경영진과의 갈등이 계속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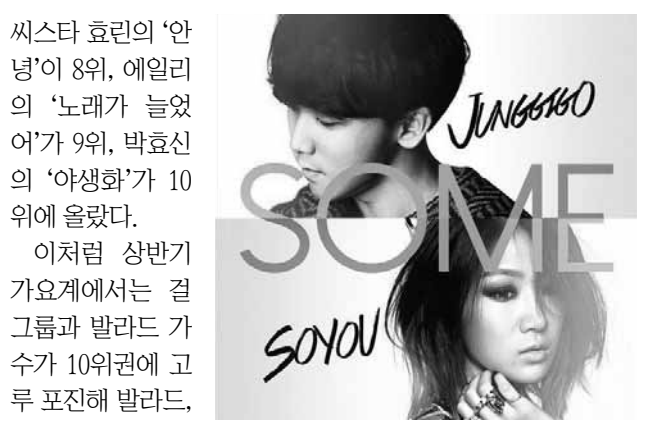
2012년에는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파업에 이어 작가 해고 논란이 불거지면서 11개월간 방송이 중단되기까지 했다.

광우병을 보도한 제작진은 검찰에 체포되는가 하면 2011년에 이어 올해 다시 회사로부터 연거푸 징계를 받았다.

오히려 미스터리 아이템 부문에서 강한 SBS 시사교양 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 전부터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며 주목받는 현실이다.

‘그것이 알고 싶다’는 최근 여대생 공기총 청부 살해 사건을 추적한 ‘죄와 벌-사모님의 이상한 외출’이나 ‘일베와 행계-어디에도 있고 아무데도 없다’ 등으로 대중적으로 큰 반향을 낳았다.

PD수첩이 세태를 비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권력 감시라는 본디 역할에서도 좀더 분발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이처럼 상반기 가요계에서는 걸 그룹과 발라드 가수가 10위권에 고루 포진해 발라드, 댄스, 미디움 템포의 팝 등 여러 장르가 사랑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니의 한 관계자는 “특히 상반기에는 시각적으로 강렬한 음악보다 달콤하고 서정적인 노래들이 큰 인기를 얻었는데 봄에서 여름으로 이어지는 계절적인 요인도 반영된 것 같다”고 분석했다.

데뷔 40주년 ‘전영록’의 음악세계

EBS ‘스페이스 공감’ 3일 밤 12시 15분 방송

EBS TV ‘스페이스 공감’은 3일 밤 12시15분 특별기획 ‘다시, 공감’에서 가수 전영록<사진>편을 방송한다.

가수 데뷔 40주년을 앞두고 있는 전영록이 출연해 히트곡뿐만 아니라 그가 작곡한 명곡들을 새롭게 들려준다.

1971년 영화배우로 먼저 데뷔한 전영록은 1975년 1집 ‘나그네 길’을 발표하며 가수로서의 첫발을 내딛는다.

또 이지연의 ‘바람이 멈추어다오’, 양수경의 ‘사랑은 창밖에 빛물 같아오’, 김지애의 ‘알미운 사람’, 김희애의 ‘나를 잊지 말아요’도 모두 전영록의 곡이다.

제작진은 “전영록의 노래들은 어렵지 않고 따라 부르기 쉽지만 오랫동안 가슴에 남아 여운을 준다”며 “어느덧 데뷔 40주년을 앞두고 있는 관록의 뮤지션 전영록의 멋진 공연이 펼쳐진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방송에는 전영록의 공연에 이어 랠리시트와 게이트 플라워즈의 공연도 펼쳐진다. /연합뉴스